


□공동대표: 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정책위원장: 박상인 □사무총장: 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http://www.ccej.or.kr)  withccej 후원 008-01-0567-507(국민)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 문의 : 경실련 정책국 (국장 남은경, 간사 조성훈 / 02-3673-2142)
- 시행 : 2020. 12. 15. (총5매)

## 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대대적인 문제제기에도 개선 없는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해결 의지 없어

지난해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를 조사해 문제제기 했다. 당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 받고 준 돈은 5년간 9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 당시 상위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돈 주고 상 받은 행태를 살펴본 결과 9개 지자체는 여전히 동일한 명목으로 총 1억1천만 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발표를 시작으로 다수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법적인 관행이 시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상 받고 준 돈은 4억7천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당수 지자체가 돈 주고 상 받은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례가 다수 있어 그 금액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 1. 경상북도 청송군, 올해 3천5백만 원으로 최다 지출

(단위 : 원, 건)

순위	지방자치단체	2020년 지출 금액 (돈 주고 상 받은 건 수)	19 ~ 20년 지출 금액 (돈 주고 상 받은 건 수)
1	경상북도 청송군	35,200,000 (2)	62,700,000 (3)
2	전라북도 고창군	31,000,000 (3)	93,600,000 (8)
3	경상북도 울진군	27,500,000 (1)	82,500,000 (3)
4	강원도 양구군	19,230,000 (4)	56,890,000 (7)
5	충청북도 단양군	0 (0)	53,420,000 (4)

	경상북도 의성군	0 (0)	60,000,000 (4)
	충청남도 청양군	0 (0)	16,500,000 (1)
	경기도 이천시	0 (0)	44,000,000 (2)
	경상북도 김천시	0 (0)	0 (0)
<b>합계</b>		<b>112,930,000 (10)</b>	<b>469,610,000 (32)</b>

2020년 조사대상 9개 지자체 중 경상북도 청송군이 3천5백만 원을 지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라북도 고창군이 3천1백만 원을 , 경상북도 울진군이 2천7백만 원, 강원도 양구군이 1천9백만 원을 지출해 뒤를 이었다.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지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지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발표에 이어 전라북도 고창군이 9천3백만 원으로 최다 지출 했다. 경상북도 울진군이 8천2백만 원, 경상북도 청송군이 6천2백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경상북도 김천시를 제외하고는 적게는 1천6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개 지자체는 평균 1천2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돈 주고 상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정하면 2천8백만 원에 달했다.

## 2. 돈을 썼지만 상과는 무관하다는 충청북도 단양군, 불성실 자료 공개 의성군

지난해 발표에서 전국 지자체 중 3위를 차지했던 충청북도 단양군은 이번 조사에서 매우 불성실하게 응답했다. 수상 내역도 일부 누락해서 공개했으며, 수상 관련 지출은 해당사항 없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지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양군은 돈은 지출했으나 수상과는 관련이 없고, 해당 수상 대상(단양마을, 단양고추, 귀농귀촌 등)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지출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돈 주고 상 받는 행태가 크게 문제 되면서 내부적으로 곤욕을 치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 차례 문제 제기 후 추가 회신을 받았으나 작년에 공개한 자료에서 추가된 내용이 없었다.

경상북도 의성군도 수상은 했으나 지출 내용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돈 주고 상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작년 조사에서부터 수상자체가

없다고 밝혔으나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 등 수차례 각종 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적당하게 자료만 숨기고, 넘어가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했으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 3.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해결 의지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실련은 지난해 말 발표 이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돈 주고 상 받는 행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포함해 문제 해결에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태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무 부처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는 계속 되고 있었으며, 국민의 혈세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치적 쌓기에 낭비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조속히 전국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근절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2009년 권익위가 권고한 민간 포상 참여 심의제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가 아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검찰 또한 경실련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 감사원, 검찰 모두 돈 주고 상 받는 행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자체·공공기관·언론·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 4.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반드시 근절돼야

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홍보비 또는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닌 국민의 눈을 속이는 기만행위이며, 오래된 사회적 병폐다. 그럼에도 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이번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자체들은 돈을 주고 상을 받으며 치적을 쌓기 위해 골몰 중이다.

권익위는 조속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시는 돈 주고 상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치적을 쌓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붙임 「2019 ~ 2020 9개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은 내역」

(단위 : 원)

지자체	수상일자	시상식 명칭	지출금액
고창군	19.03.21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10,000,000
	19.04.03	국가브랜드 대상	22,000,000
	19.04.1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0,000,000
	19.06.27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고창멜론)	4,000,000
	19.06.27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고창땅콩)	6,600,000
	20.05.14	국가브랜드 대상	11,000,000
	20.05.21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0,000,000
	20.06.04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10,000,000
단양군	19.03.21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16,500,000
	19.03.28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4,400,000
	19.04.1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8,000,000
	19.06.11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단양마늘)	14,520,000
양구군	19.06.11	대한민국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9,600,000
	19.04.1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2,000,000
	19.06.14	대한민국 공감경영대상	6,060,000
	20.02.11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3,000,000
	20.06.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	500,000
	20.06.26	대한민국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9,680,000
	20.08.25.	국민공감 캠페인	6,050,000
울진군	19.04.03	국가브랜드 대상	27,500,000
	19.04.03	국가브랜드 대상	27,500,000
	20.05.14	국가브랜드 대상	27,500,000

이천시	19.04.03	국가브랜드 대상	27,500,000
	19.07.24	올해의 브랜드 대상	16,500,000
의성군	19.01.17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11,000,000
	19.01.29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5,000,000
	19.02.21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16,500,000
	19.04.03	국가브랜드 대상	27,500,000
청송군	19.04.1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7,500,000
	20.05.21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사과)	17,600,000
	20.05.21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도시)	17,600,000
청양군	19.04.03	국가브랜드 대상	16,500,000